

#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신종호(申宗昊)\*

황혜영(黃惠暎)\*\*

서은진(徐恩鎭)\*\*\*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종단: 2005>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관리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학생의 수학과목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업관리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배제한 사교육비 지출의 주효과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비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의 학업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 행동적 지원과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사교육, 학업관리,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경제적 지원, 부모, 가정

## I. 서론

가정의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아동이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주는 가정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의 지원 없을 경우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며(Stipek & Ryan, 1997), 학업활동과 학습동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실패하고(Borkowski & Thorpe, 1994),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장애물과 실패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이처럼 학생들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지원은 경제적 지원, 행동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의 여러 형태로 드러난다. 이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의 한 형태인 사교육비 지출은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회현상이자, 많은 교육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영역이다.

사교육비용의 지출은 한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한국의 많은 가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과외나 학업수업과 같은 사교육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한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사교육비용에 연간 20조 이상을 지출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70% 이상이 국어, 수학, 과학 과목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김양분 외, 2003). 또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성기선, 김준엽, 2010). 이 같은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용의 지출은 자녀의 학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 형태인 사교육 효과에 대한 한국 가정의 믿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리 일관되지 않다. 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분명히 존재하지만(김경식, 2003; 김인옥, 2002; 김일혁, 강상진, 2005; 박도영, 박정, 김성숙, 2001; 상경아, 2006; 상경아, 백순근, 2005), 반대로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김태일, 2005; 임천순, 박소영, 이광호, 2004),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김진영, 2007a; 한대동, 성병창, 길임주, 2001). 또한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 역시, 학생의 성취수준, 과목 등에 따라 사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아동의 학업성취를 예언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로 자녀의 인적자원 창출에 차별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한 투자이론(Becker, 1993)과 달리 Coleman(1988)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자녀의 인적자원 사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족내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물질적 자원과 학업성취를 연결시켜줄 매개 변인으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발생되며 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나 시간의 투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정의 실제 자본이 자녀의 인적자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학업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행동적·심리적 지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도하고, 관리하며, 성공 및 실패 상황에서 적절한 지지와 조언을 하는 등의 행동적·심리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일부 연구는 가정의 배경 요인이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음을 함께 보고하고 있다(김일혁, 강상진, 2005). 이들 연구는 비록 직접적으로 가정의 행동적·심리적 지원이 사교육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영향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부모의 행동적·심리적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부모가 자신에게 거는 심리적 기대가 높다고 생각하는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며(신중호, 신태섭, 권희경, 2004; 박영신, 김의철, 2003), 부모가 의사결정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의 기분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제공할 때 아동의 동기는 보다 높아진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특히 부모가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지각할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진다(이정선, 2001).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부모의 학업관리의 조절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부모의 학업관리는 자녀에게 지각되는 부모의 행동적·심리적 지원의 중요한 형태로(Fan & Chen, 2001), 자녀의 숙제를 돌봐주는 데 시간을 보내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들을 포함한다(Fehrmann et al., 1987; Peng & Wright, 1994; Yap & Enoki, 1995). 만일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경제적으로만 지원하는 경우,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학원 및 과외 교사로 넘어가고 부모는 투자자와 같은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기 쉽다. 반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더불어 능동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자신의 학업에 대한 지지로 보다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억압'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부모의 권유에 의해 과외를 수강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김진영, 2007b; 윤정일, 1997). 이에 따라 학습자의 자율적인 동기로 사교육을 수강하고 이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 못지않게, 부모의 압력에 의해서 사교육을 강제로 수강하는 학생들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 동기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 스스로 과외를 원해서 선택한 경우 학습동기 수준이 가장 높았고, 부모의 압력에 의해서 과외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정,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의 자율적인 사교육 수강 여부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학생의 자기주도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특성은 학습동기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같은 학생 개인 변인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종백, 김준엽, 2009; Grolnick & Slowiaczek, 1994). 특히,

아동의 나이가 증가하여 아동이 학교와 같은 가정 외의 다른 사회적 공간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줄어든다(Schunk, Pintrich, & Meece, 2008). 따라서 중학생 이상의 아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단선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개인의 발달과정 속에서 형성된 인지적, 동기적 특성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한 형태인 사교육의 효과가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며, 부모의 지원을 자신의 학업자원으로 잘 활용한다(Zimmerman, 2000). 따라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외적인 통제에 의해서 사교육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사교육은 학습자의 학업능력과 학업에 대한 동기를 신장시키기보다,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이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독립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 및 학생개인의 변인의 조절효과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능력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업관리의 조절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둘째,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자료의 기준년도에 선발된 중학생 6,908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5년 150개 중학교에서 재학중이었던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2007년의 2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 해당 변인들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기대-최대화 방식으로 대체하여 활용하였다.

기대-최대화 방식은 결측자료의 분포 모양을 가정하고, 그 분포 하에서 결측치에 대한 우도값을 추정하는 기법이다(Hair et al., 2010).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모두 제거할 경우 표본의 상실이 커져, 각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한 후 결측치를 처리하는 데 있어 기대-최대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독립변인의 투입은 동시투입방법(enter method)을 적용하였다.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나타내는 사교육 정도는 부모가 학생의 학업지도를 위해 사용한 사교육비용으로 측정하였으며 사교육비용은 주요 교과인 수학에 해당하는 2차년도의 학원 및 과외비용으로 소요된 전체 비용을 사용하였다. 사교육비용의 경우 회귀분석을 위한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로그화를 통해 대수변환된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업관리는 2차년도 부모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설문 문항 가운데 부모가 자녀의 학업활동에 개입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네 개의 문항(예: 나는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 4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3$ 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2차년도 학생자기조절설문지의 문항들 가운데 자기조절의 행동 지표와 관련된 문항들의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학업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노력, 끈기, 시간 및 공간관리, 도움요청 및 자원 활용과 관련된 문항들이다(예: 나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이들 37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3$ 으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에는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의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로 설정된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적 관계를 고려하여 2차년도가 아닌 3차년도 수학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점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전 학업성취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이전 해인 2차년도의 수학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점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학생들의 수학성취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약 100점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1> 참조).

<표 1> 연구변수의 기술통계치

|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2학년 수학성취도       | 400.53 | 67.01 | 288.00 | 637.00 |
| 3학년 수학성취도       | 510.15 | 62.07 | 425.00 | 721.00 |
|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 2.20   | 0.57  | -0.69  | 4.70   |
| 부모의 학업관리        | 3.33   | 0.63  | 1.00   | 5.00   |
|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 2.73   | 0.36  | 1.00   | 4.00   |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0.06~0.24로 비교적 낮은 값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 독립변수의 허용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이 적절한 값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수행하여도 다중공선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가 0.1 이하 그리고 분산팽창요인이 5-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데(Hair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모든 독립변수에서 허용도가 0.64~0.90으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VIF 값도 1.04~1.56으로 모두 5 미만이었다.

<표 2>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
| 1. 2학년 수학성취도       | -      |        |        |   |
| 2.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 0.15** | -      |        |   |
| 3. 부모의 학업관리        | 0.21** | 0.15** | -      |   |
| 4.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 0.24** | 0.06** | 0.24** | - |

\*\* p <.01

본 연구의 주목적인 부모의 학업관리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주요 예측 변인들의 주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만을 예측변수에 포함시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모형의 결정계수( $R^2$ )가 0.391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부모의 학업관리, 그리고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수준 .01 수준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및 학업관리의 회귀계수 값은 각각 4.21과 6.37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회귀계수 값은 13.05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및 학업관리와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사교육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투자하고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가질수록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학업성취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해 이들 세 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및 학업관리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평소에 자녀의 학업을 관리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부모의 학업관리와 같은 행동적·심리적 지원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학업관리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각 0.04, 0.07, 0.08로 나타났다.

<표 3> 3학년 수학성취도에 대한 2학년 수학성취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및 학업관리, 자기조절학습능력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비표준화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 회귀계수 | t     | p   |
|-----------------|-----------|------|----------|-------|-----|
| 2학년 수학성취도       | 0.50      | 0.01 | 0.54     | 53.51 | .00 |
|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 4.21      | 1.08 | 0.04     | 3.90  | .00 |
| 부모의 학업관리        | 6.37      | 1.00 | 0.07     | 6.39  | .00 |
| 자기조절학습능력        | 13.05     | 1.76 | 0.08     | 7.40  | .00 |

이어서 본 연구의 목적인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포함시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포함시킨 모형의 결정계수( $R^2$ )는 0.398로, 기존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변화량=.007,  $p=.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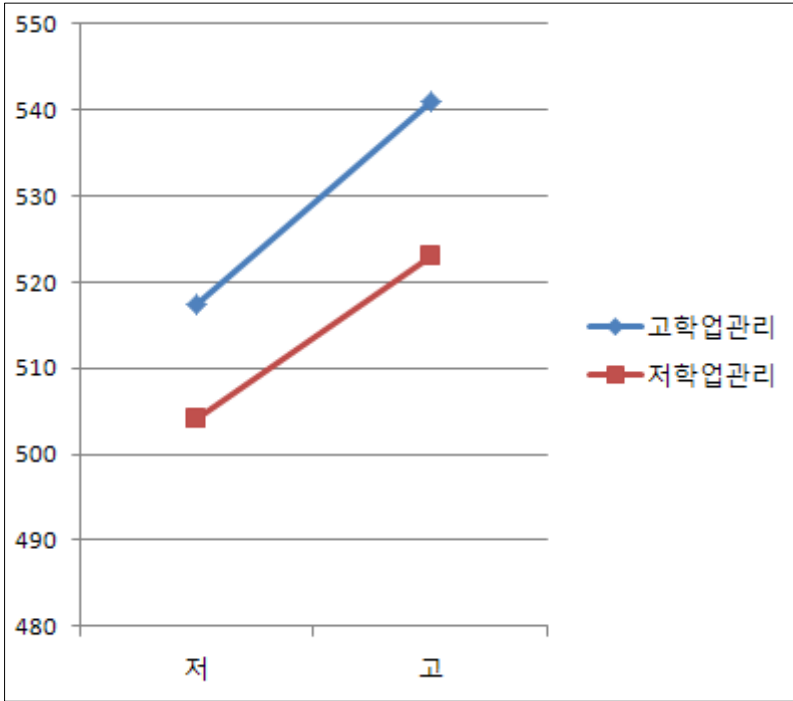
먼저, 부모의 학업관리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즉, 자녀의 학업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는 부모의 평소 학업관리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부모의 학업관리 정도에 따른 사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학업관리정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사교육의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관리할 때, 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직접적인 관심과 개입을 보이지 않는 경우, 사교육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 효과 및 부모의 학업관리,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주효과를 관찰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주요 변수들의 주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업관리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적 지원 효과를 제외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부모의 학업관리와 같은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부모의 학업관리와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비표준화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 회귀계수 | <i>t</i> | <i>p</i> |
|-----------------|-----------|------|----------|----------|----------|
| 2학년 수학성취도       | 0.50      | 0.01 | 0.54     | 53.42    | .00      |
|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 -20.72    | 9.65 | -0.19    | -2.15    | .03      |
| 부모의 학업관리        | -2.92     | 4.01 | -0.03    | -0.73    | .47      |
| 자기조절학습능력        | 4.72      | 7.17 | 0.03     | 0.66     | .51      |
| 경제적 지원×학업관리     | 4.19      | 1.75 | 0.18     | 2.39     | .02      |
| 경제적 지원×자기조절     | 3.76      | 3.13 | 0.11     | 1.20     | .23      |





[그림 1]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학업관리에 따른 3학년 수학성취도 평균

#### IV. 논의

본 연구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동시에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배제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학업관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부모의 학업관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부모의 행동적·심리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모의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다. 하지만 실제 부모들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시사점을 얻기는 힘들었다. 많은 한국의 부모들은 가족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자녀의 학업적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기에(Yu & Yang, 1994), 당장 가계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면서 필수적인 지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자녀의 학업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정서적 행동적 지원을 보내는 학업관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모는 무작정 자녀를 학원에 보내거나 가정교사의 지도하에 두는 것보다, 실제 자녀가 학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학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관리가 부재한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학생의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 역시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에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오직 경제적으로만 지지하는 경우 오히려 부모의 지지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장혜정, 2005). 이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효과를 배제한 사교육의 효과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학생의 학업에 대한 부모 역할의 전부라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사교육에 의존하여 자녀의 학업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의 자녀 교육방식에 대한 반성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처럼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가 학업관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사교육과 같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가 긍정적일 수도 혹은 부정적이거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을 모두 보여준다(Meece, 2002; 이은우, 2006; 상경아, 백순근, 2005; 최정선 외, 2007; 윤정일, 1997). 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학업적 부담을 가중시켜 학생의 학업성취 및 학습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박영양, 이성희, 2004; 이종태 외, 2002),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나 가정의 배경은 학생의 학업성취 및 동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보고한다(Stipek & Ryan, 1997; 한대동, 성병창, 길임주, 2001)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는 그 자체로서는 알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가 학생의 유능감과 같은 동기적 심리구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김종백, 김준엽, 2009; Grolnick & Slowiaczek, 1994)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가 부모의 학업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이러

한 결과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과 같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학업관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행연구(Shunk, 1994; Zimmerman, 2000)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효과가 비교적 적게 나타난 것은 중학생의 연령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과 청소년기 초기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교라는 기관으로 주 생활공간을 옮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자율성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학업성취에는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학생에게 사적으로 유의미한 인물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전숙, 고미선, 2007).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반복된 학습경험에 의해 발달하는 구인으로(Oaten & Cheng, 2006; McPherson & Renwick, 2001; Muraven, Baumeister & Tice, 1999), 학생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ntzel, 1993). 즉,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대학생 및 성인에 비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의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사교육의 효과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문제를 재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수학성취가 수학성적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Marsh, 1990)에 근거하여, 전년도 수학성취도 점수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개인의 수학학업성취도는 이전 수학성취도 점수 외의 다른 여러 개인적·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 부모의 기대 등의 다른 타당한 변수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식(2003). 학교 학업성적에 대한 과외학습의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13(3), 21-41.
- 김선숙, 고미선(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47(1), 5-29.
- 김양분, 강상진, 유한구, 남궁지영(2003). 학교교육수준 및 실태분석연구: 고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RR 2003-16)**.
- 김인옥(2002). 초등영어 사교육과 공교육의 효율성 비교 분석. **영어교육연구**, 14(2), 277-298.
- 김일혁, 강상진(2005). 고등학생의 수학성취도와 가정배경 요인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 32(4), 193-221.
- 김종백, 김준엽(2009). 학업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 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진영(2007a). 고3 수험생들의 시간활용과 사교육 효과. **한국교육**, 34(4), 57-78.
- 김진영(2007b).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사교육의 원인과 결과. **공공경제**, 11(2), 119-151.
- 김태일(2005). 고등학교 때 사교육이 대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교육의 '인적자본 효과'와 '대학진학효과'에 대한 논의. **교육학연구**, 43(3), 29-56.
- 박도영, 박정, 김성숙(2001). 중학교 수학·과학 성취도에 대한 학교-학생 수준 배경변수들의 효과. **교육평가연구**, 14(1), 127-149.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영양, 이성희(2004). 유아의 과외참여 현황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4(2), 175-196.
- 상경아(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과외효과의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 33(1), 153-172.
- 상경아, 백순근(2005). 고등학생의 수학 과외가 학업성취도, 태도,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18(3), 39-57.
- 성기선, 김준엽(2010).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과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 비교연구: 한국, 일본, 핀란드 과학성취도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1), 103-126.
- 신종호, 신태섭, 권희경(2004). 학업수월성에 대한 귀인 유형의 탐색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8(4), 261-277.
- 윤정일(1997). 초,중등학생 과외실태 조사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6(3), 231-260.

- 이은우(2006). 중학생 가정의 소득 및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47-273.
- 이정선(2001). 초등학교에 있어서 학업성공과 사회자본 관계: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4(3), 253-288.
- 이종태, 김양분, 이인효, 윤초희, 성기선, 김미숙, 허수영, 김성식, 조옥경(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천순, 박소영, 이광호(2004).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3(1), 331-356.
- 장혜정(2005). **사교육이 아동의 학습동기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최정선, 박종조, 구이선(2007). 자기 및 타의주도적 선행학습이 과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7(9), 765-777.
- 한대동, 성병창, 길임주(2001). 고등학생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효과와 과외효과의 비교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1(1), 33-54.
- Becker, G. S. (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rowski, J. G., & Thorpe, P. K. (1994).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A life-span perspective on underachievement. In D. H. Schunk & B. J. Zimmerman (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pp. 45-73). Hillsdale, NJ: Erlbaum.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1-22.
- Fehrmann, P. G., Keith, T. Z., & Reimers, T. M. (1987). Home influence on school learn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high school grad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0, 330-337.
- Grolnick, W. S., & Slowiaczek, M. L. (199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65, 237-25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s.). NY: Pearson.

- Marsh, H. W. (1990). Causal ordering of academic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A multiwave, longitudinal pane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646-656.
- McPherson, G. E. & Renwick, J. M. (2001). A longitudinal study of self-regulation in children's musical practice. *Music Education Research, 3*, 169-186.
- Meece, J. L. (2002).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for educators* (2nd ed.). New York: McGraw-Hill.
- Muraven, M., Baumeister, R. F., & Tice, D. M., (1999). Longitudinal improvement of self-regulation through practice: Building self-control strength through repeated exercis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9*(4), 446-457.
- Oaten, M., & Cheng, K. (2006). Longitudinal gains in self-regulation from regular physical exercis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717-733.
- Peng, S. S., & Wright, D. (1994). Explan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of Asian America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7*, 346-352.
- Schunk, D. H. (1994). Self-regulation of self-efficacy and attributions in academic settings. In D. H. Schunk & B. J. Zimmerman (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Hillsdale, NJ: Erlbaum.
- Schunk, D. H., Pintrich, P. R., & Meece, J. L. (2008).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3rd Eds.). New York: Pearson Education.
- Stipek, D. J., & Ryan, R. H. (1997). Economically disadvantaged preschoolers: Ready to learn but further to go. *Development Psychology, 33*, 711-723.
- Wentzel, K. R. (1993). Social and academic goals at school: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 4-20.
- Yap, K. O., & Enoki, D. Y. (1995). In search of the elusive magic bullet: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outcomes. *School Community Journal, 5*, 49-58.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 societies. In U. Kim, H.C. Triandis, C. Kagitcibasi, S.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239- 250). London: Sage Publications.
- Zimmerman, B. J. (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13-39). San Diego: Academic Press.

\* 논문접수 2010년 11월 1일 / 1차 심사 2010년 12월 1일 / 2차 심사 2010년 12월 17일 / 게재승인 2010년 12월 23일

\* 신중호(申宗昊, Jongho Shin):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E-mail : jshin21@snu.ac.kr

\* 황혜영(黃惠暎, Hyeyoung Hwang):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 hyhwang@email.unc.edu

\* 서은진(徐恩鎭, Eunjin Seo):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 tkfkd49@snu.ac.kr

Abstract

##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Self-Regulation

Jongho Shin\*

Hyeyoung Hwang\*\*

Eunjin Seo\*\*\*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at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effect was examined with the two moderating variables of parents' academic involvement and students' self-regulation ability. In this study, the data of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was used and was analyzed by the multiple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academic work increased the positive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main effect of private tutoring was negative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hich indicates that private tutoring itself would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ithout parental involvement in students' academic work. On the other hand, students' self-regulation ability showed no significant main and moderating effects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how parents would support their children's academic work.

Key words: private tutoring, parental involvement,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 financial support

---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candidate studen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hill

\*\*\* Master candid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